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곽 동 철(Dong-Chul Kwac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발전 방향 |
| II. 문헌정보학 교육의 도입과 발전과정 | V. 결론 |
| III.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문제점 |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셋째, 이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도서관 이란 '시설'보다는 '시설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나아가 한국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적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정립하고, 전문직 사서 양성을 위한 표준교과과정을 확립하며, 사서양성기관의 정비 및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교육철학, 도서관교육, 도서관사상, 사서양성기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ssence and direction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first,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Korea was examined in this research; Second, the problems in the library field as well as the academic communi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 analyzed; Thir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essence and directions of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re explored. In this research, an attempt was made to figure out the essence of library science education with the focus on libraries as 'the quality as a facility', not as 'a facility itself.' Furthermore, it was emphasized that Korean Library Association should establish the essen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develop the standard program for educating professional librarians, and improve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librarians by connecting the library field with the academic communi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ywords: Philosoph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Library Education, Library Philosophy,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Librarians

* 이 글은 201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kwackdc@cju.ac.kr)

• 접수일: 2011년 5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1년 6월 7일 • 최종심사일: 2011년 6월 28일

I. 서론

최근 들어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계에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그동안 문헌정보학계가 학문의 실천성과 정체성의 부족으로 도서관이라는 현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발전적 정책이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헌정보학계는 도서관 현장의 후진성과 국내·외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구조 조정이라는 위협 요소로 말미암아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위기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은 결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대학의 강단에서, 도서관 관련 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주제로 논의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문헌정보학계의 현실이라면, 이에 대해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것 역시 학계의 책임과 의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학계나 도서관계에서 이 점에 대해 통일되거나 합의된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우리 문헌정보학 교육은 아직도 그 정체성과 학문성이 모호하며 도서관 현장과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와 노력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전반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계도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적 존재로 남을 수는 없다.

소위 국내 전문직 사서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서양성기관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 사서의 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취업 전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 현장에 취업을 성공한 사서라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비전문직이나 하위 등급의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어떠한 전문직 사회에서도 찾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집단적 의사표시나 단체행동도 거의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문헌정보학 교육의 바람직한 시행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본질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서들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 유통의 가장 중추적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이나 학문성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정보학 교육의 도입과 발전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 관련 단체나 기관에 의한 근대식 사서의 양성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¹⁾ 및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²⁾의 내용에 의하면 1939년에 조선도서관연맹이 실시한 도서관사무강습회이다. 이 단체는 1926년에 경성도서관연구회로 출발하여 1928년에 조선도서관연구회로 개칭되었다가 1939년에 조선도서관연맹으로 발족되었다. 이처럼 조선도서관연맹이 이러한 강습회를 주도하였지만, 실제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이 교육을 주관하였다. 이 강습회는 1943년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국인 스스로의 근대식 사서 양성 교육은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국립도서관의 관리·운영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들은 국립도서관 소속으로 후에 국립도서관학교로 개칭한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여 1946년 4월 1일에 개교하였다. 아울러 박봉석 부관장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협회(1949년 10월 개칭)의 전신인 조선도서관협회를 1945년 8월 30일에 결성하였고, 동년 10월에 해체되는 조선도서관연맹을 인수하여, 사서의 양성 교육을 주도하였다.

그 이후 1947년 4월에는 국립도서관과 조선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조선도서관학교에서 제1회 ‘도서관사업강습회’를 10일간 개최하였다. 이 강습회에 총 57명의 현직 사서가 참여하였다. 이어서 1948년 10월에 제2회(45명), 1949년에는 제3회(42명) 강습회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한국동란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 당시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의 운영권이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으로 넘어오면서 원활한 경영을 위해 부족한 사서직원의 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도서관인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던 시기였다.

이처럼 한국인에 의한 한국의 도서관을 위한 사서 양성 교육은 한국동란으로 인해 해방이후 나름대로 싹트기 시작한 기본적인 학문으로서의 사상과 철학적 체계를 확립하기도 전에 중단되었다. 또한 그동안 설립 운영해오던 조선도서관학교 역시 폐교되었다. 이와 함께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의 한국동란 중 행방불명은 도서관계 발전의 큰 손실이었다. 이재욱 관장은 선진 도서관 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립도서관을 경영하고 도서관계를 선도하고자 하였으며, 박봉석 부관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pp.42-71.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pp.34-11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2호)

장은 전술한 사항 외에도 분류표와 목록규칙을 편저하는 등 우리 도서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진력하고 있었다. 전술한 사항들은 우리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 현장의 정체성과 학문성 확립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7년 연세대학교에서는 한국 최초의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 및 2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규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을 대학수준으로 격상시킨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에서는 한국도서관학당을 같은 해에 설치하여 도서관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고급사서과정(1957~1971)과 사서교사과정(1957~1965)을 운영하였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과 그 당시 교육사절단으로 내한하여 연세대학교에 파견되었던 조지피바디사범대학(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의 도서관계 인사들의 도움이 지대하였다.

한국도서관학당은 신설 당시에 4년제 학부 졸업생이 배출되는 1961년까지 4년간만을 존속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재훈련을 받지 못한 현직 도서관원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도서관계의 요망에 따라 예정보다 10년을 더 연장한 1971년 초에 폐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당시 주로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면서 한국도서관학당의 고급사서과정을 마친 219명³⁾에 이르는 졸업자들은 현장을 그대로 지켰거나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를 비롯하여 1970년대에 후술하는 각 대학의 도서관학과 창설과 함께 교수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물론 이 당시에 현직 사서교사로서 사서교사과정을 마친 몇 분의 졸업자들도 대학의 도서관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대학으로 옮긴 각 대학 교수들의 학부 전공은 영어영문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국어국문학과 사학을 비롯한 인문과학 분야이며, 나머지는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세대학교 한국도서관학당의 교육과정이 외국인 교수에 의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전술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이미 도서관 현장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당시 우리나라 사서 양성 교육은 도서관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문헌정보학의 사상과 철학보다는 도서관이란 틀 속에서 업무처리 기능 중심의 교과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겠다.

연세대학교에서의 도서관학과 창설은 <표 1>에서와 같이 다른 대학에서의 도서관학과 개설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⁴⁾ 이를테면, 이화여대(1959년), 중앙대(1963년), 성균관대(1964년)가 각각 도서관학과를 설치하여 사서양성을 위한 학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 경북대(1974년), 1976년에 숙명여대와 대구가톨릭대, 1979년에 청주대, 강남대, 신라대, 충남대에 각각 학부과

3) 연세대학교 도서관학동문회, 도서관학동현록(서울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동문회, 1963).

4) 박동철,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1차 도서관정책 포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2010년 10월 29일 발표 자료 참조.

정으로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1980년대부터 양적 확대를 초래하여 전국적으로 사서의 양성 교육을 위해 2010년 10월 현재 모두 4년제 34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문헌정보교육학과, 접자문헌정보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및 교육대학원이 각각 28개교와 15개교 및 16개교,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가 6개교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학 부설의 사서교육원 2개교 및 전문대학 부설의 사서교육원 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나사렛대학교에 접자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계명문화대학(이전 교명은 계명전문대학)과 동부산대학(이전 교명은 동래여자전문대학)이 폐과가 되었고, 송곡대학교에 문헌정보과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창원전문대학은 창원문성대학으로 교명을 개정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은 인천대학교와 합병되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됨으로써, 현재 전문대학 6개교에서 준사서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사서의 정규 교육 및 양성 기관(학부, 대학원 등) 현황

(2010년 10월 현재)

대학(교)명	학부 설치연도	대학원설치연도		교육대학원 설치연도	사서교육원 설치연도	기타
		석사	박사			
1. 강남대학교	1979	2005				
2. 건국대학교	1984					
3. 경기대학교	1983	2000	2002	1998		
4. 경북대학교	1974	1978	1999			
5. 경성대학교	1983	2005				
6. 계명대학교	1980	1989	1999	1998	1989	
7. 공주대학교	1983			1987		문헌정보교육과
8. 광주대학교	1984	2008				
9. 나사렛대학교	2007					접자문헌정보학과
10. 대구대학교	1982	1997		2000		
11. 대구가톨릭대학교	1976	1997		2003		도서관학과
12. 대진대학교	1991	2001		1997		
13. 덕성여자대학교	1980					
14. 동덕여자대학교	1980	1996				
15. 동의대학교	1982	2009				
16. 명지대학교	1980	1989	2008	1994		
17. 부산대학교	1984	1989	1993	2000		
18. 상명대학교	1980	1980	1993	1994		
19. 서울여자대학교	1980	1988				
20. 성균관대학교	1964	1971	1974	1999	1965	
21. 숙명여자대학교	1976	1983	2006	1982설치, 1999폐지		
22. 신라대학교	1979			1998		
23. 연세대학교	1957	1957	1980	1979폐지, 2003신설	1957설치, 1971폐지	한국도서관학당
24. 이화여자대학교	1959	1959	1987	1999폐지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2호)

대학(교)명	학부 설치연도	대학원설치연도		교육대학원 설치연도	사서교육원 설치연도	기타
		석사	박사			
25. 인천대학교	2010					인천전문대학(1981)
26. 전남대학교	1980	1992	1998	2004		
27. 전북대학교	1980	1999	2002	2000		
28. 전주대학교	1983	1994				
29. 중부대학교	1994	2005		2003설치, 2007폐지		
30. 중앙대학교	1963	1972	1983	1997		
31. 청주대학교	1979	1984		1995		
32. 충남대학교	1979	1991	2002			
33. 한남대학교	1981	1997				
34. 한성대학교	1981	1998	2006			
(한양대학교)				1980설치, 2007폐지		2007년 2학기 전공폐지
소 계	34	28	15	16	2	
1. 대림대학	1994					
2. 동원대학	1997					
3. 부산여자대학	1970				1997	전공심화과정설치
4. 승의여자대학	1972					전공심화과정설치
5. 창원문성대학	1980					교명(창원전문대학) 변경
6. 송곡대학교	2009					
(계명문화대학)	1974					폐과
(동부산대학)	1979					폐과
(인천전문대학)	1981					인천대학교와합병(2010)
소 계	6				1	

이러한 사서의 양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사서직원의 자격 제도도 한국도서관협회의 8년에 걸친 지속적인 추진으로 1963년에 『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충하였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과 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규범이며, 도서관이나 도서관에 관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자 수행해야 할 도리로서, 도서관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도서관법은 도서관과 관련된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현실적 조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기록, 즉, 정보이용에 대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실정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도서관법의 주요 골자가운데 사서직원의 자격과 양성을 위한 기준을 각령으로 정한 것은 사서직원의 전문성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법』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거나 대체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서직원의 자격 및 양성 기준을 포함한 사서 자격 제도 역시 부분적으로 변화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과 접근을 보장하는 민주적 권리를 진작 시켜 도서관 활동을 지원하고자 상기 제도를 포함한 국가의 도서관정책과 행정의 근간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도서관법상 사서직원의 자격과 양성 관련 제도의 변화 및 발전을 살펴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도서관 문화 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서들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반영한 성과 또한 크다고 하겠다.

Ⅲ.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의 문제점

지금부터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개진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 사서의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육과 도서관 현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모두가 지적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아무리 훌륭하고 미래가 밝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학문이라 홍보할지라도, 첫째, 배우고자 입학하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둘째,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서 전공을 살릴 수 없으며, 셋째, 사회적으로나 조직 내에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간다면 그 반대의 경우를 기대할 수도 있다.

우리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 현장 역시 이렇게 사서직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많은 발표 논문에서⁵⁾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들이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오고 있다. 그 주장들은 문헌정보학 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대별하면 하나는 우리 문헌정보학의 학문성과 교육방향, 다른 하나는 전문직 사서로서의 위상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사상과 철학, 사서양성 및 교육기관, 교과과정 등을 포함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제도, 전문직 단체, 계속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학회, 단체, 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기반으로 정리하여 출판한 이제환 교수의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에서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⁶⁾

이러한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의 제반 문제점들은 크게 제도와 학계 및 현장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상급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원이 사서자격증이 없는 행정직이나 하급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5) 김정근 위음,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 갈 것인가(대구 : 태일사, 2000). ; 도태현, “한국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당면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토론회 자료집, 2000년 6월 23일, pp.1-15. ;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서울 : 한울, 1998). ; 양재한,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천성 확보를 위한 반성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12), pp.91-110.

6) 이제환,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사서교사 또는 사서직원 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과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된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은 사서직원이 한명도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마치 정부차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더라도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여 합법화시킨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도서관의 활성화를 주창 하면서 하드웨어인 도서관의 리모델링에만 집착하였을 뿐, 다양한 유형의 장서와 정보기기와 같은 소프트웨어 및 전문직 사서를 포함하는 휴먼웨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너무도 소극적이었다. 우리 문헌정보학계 역시 대학에서 전문직 사서 양성 교육을 실시한지 반세기가 지났건만 아직도 표준교과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분야에 버금가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작업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계의 문제로서 각 대학별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 편성이 기술을 중시하는 교과목에 편중되거나 재직 중인 교수들의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문헌정보학의 사상이나 철학 관련 과목의 개설이 소외되거나 경시되고 있다. 진 연세대학교 이병목 교수는 박사과정의 교과목인 '도서관 사상사' 시간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기획·편집하여 출판한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의 말미에서 문헌정보학 사상의 소외와 이로 인한 도서관 사상의 결핍은 학계 및 현장의 발전과 관련하여 참으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술하였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서관현장, 도서관 권리선언,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 등과 같은 도서관 정신과 도서관 철학이 담긴 기본적인 도서관 정책 문서를 그 어느 것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뒤늦게 겨우 마련한 '도서관인 윤리선언'마저 윤리강령의 기본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듯 윤리강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⁷⁾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문제는 사서직원이 학계에 대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에 비해 개혁이나 혁신에 대한 동참 및 실천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의 사례로 필자가 직접 수행하였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라'라는 서명 운동과 관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명 운동은 필자가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총무이사의 자격으로 후술할 도서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의 사서직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도서관 현장의 정상적인 경영과 발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 관계 부처의 최고책임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시도한 것이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거의 2년간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관련 학회나 세미나 및 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러한 서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2,000여명에 달했으며, 그 대부분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 대학 및 전문도서관 사서직원, 일반 행정직원 등이었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근무하는 관

7) 이병목 기획·감수,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pp.449-455.

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학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사업이었건만, 그 대부분은 서명 장소를 피하거나 우회해서 회의장에 입장하였다. 이는 아마도 이러한 서명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서명 작업은 도서관 관련 법규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사서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정부 정책을 촉구하는 하나의 전문직 권익 향상 운동이라 하겠다. 즉, 1963년 제정 후 필요에 따라 부분 개정하였던 기존의 '도서관법'을 법률 제4347호(1991. 3. 8)로 개정하여 1991년 4월 9일 시행한 '도서관진흥법' 제24조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부칙 제4조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 조항은 1991년 4월 9일 시행한 '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호, 1991. 4. 8, 제정] 부칙 제3조 (국·공립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에서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라고 명기되었다. 그 이후 '도서관진흥법'은 1994년 7월 25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 1994. 3.24, 제정]으로 바뀌었고, 이 법은 2006년 전부 개정되기까지 8 차례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서관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전술한 도서관 관련 대정부 준법 투쟁 운동이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지속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는 우리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 현장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 대신하여 행동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4년제 및 2년제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학부, 대학원,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어 도서관 현장의 수요보다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서교육원의 폐지 또는 역할 재정립에 대한 침묵 및 논의 부재를 비롯한 수많은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해법은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 현장의 구성원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상호 비난하거나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참여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구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내용들은 필자가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겪은 경험 등을 스스로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라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전문직 사서라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문제점들 가운데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표준교과과정, 사서양성기관과 사서자격 제도에 국한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발전 방향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이에 대해 원고를 작성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도서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를 마련해서라도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문헌정보학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연세대학교 약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문헌정보학(1957년)이 경영학(1958년)보다도 먼저 설치되어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왜 상대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 다른 하나는 사서자격증이 국가가 발급하는 전문직 자격증인데 왜 다른 전문직 자격증과 달리 사회적 대우가 수반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면 무시함으로 주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들은 크게 나누면,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표준교과과정, 둘째, 사서양성기관과 사서자격제도라는 틀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렇게 편이상 영역을 나눈 것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동일한 문제라고 하겠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표준교과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여 왔으므로, 그 내용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은 생략하고 필자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 역시 사서직원 관련 특강이나 세미나에서 곧잘 '전문직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여 왔다. 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대출과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할 때마다 필자는 전문직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에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전문직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사서직원의 대답이 사람과 정보서비스보다는 자료 자체와 자료의 관리에 치중되는 것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도서관'에 대한 정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도서관'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도서관'을 '시설로서의 건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설로서의 성격', 즉, '도서관이 갖는 가치 또는 중요성'에 중점을 두어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1999년부터 시립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설치·운영되지 못했던 청주에서 10여년간 공공도서관 건립 운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면서 느꼈고, 실제 적용을 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성과라는 것은 전문직 사서들이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인 공공도서관들이 계속 신설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필자가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정가나 정치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 전술한 도서관에 대한 '시설로서의 성격'에 중점을 두어 '도서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여 활용하였다.⁸⁾⁹⁾¹⁰⁾ 이는 도서관에 대한 국내·외 용어정의, 랑가나단(S.R.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¹¹⁾¹²⁾ 크로포드(Walter Crawfors)와 고먼(Michael Gorman)의 '도서관(학)의 새로운 5법칙',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천명서', 선진국 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선언 등을 고려하여 정립한 것이다.

첫째,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공익기관이다. 도서관은 공공의 편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도서관은 지속적인 사회교육을 수행하거나 이바지하기 위해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다. 도서관법에서도 도서관을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및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도서관은 편협하지 않는 자료의 수집으로 역사의 왜곡화를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보루이다. 이는 도서관이 역사적으로도 민주사회를 지켜주고, 지적자유를 고창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인 것이다. 더욱이 도서관은 사회의 모든 지적 표현물의 교류 광장으로서, 지식정보자원의 나눔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것이다. 만약 도서관에 정치색을 입혀나가면, 그 도서관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일제치하에서 도서관이 정권홍보 또는 사상선도기관으로 운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도서관은 이용자인 시민의 정보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지식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므로 정보화의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시민일수록 정보화에 늦고, 결국에는 생존능력이 뒤쳐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서 도서관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넷째, 도서관은 단순한 책 창고가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정보의 생산기지이다. 도서관은 시민에게 데이터나 정보 그 자체인 밀이나 밀가루보다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지식정보라고 하는 빵이나 수제비 및 칼국수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우리 정부도 눈앞의 이익을 탈피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위해 이러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 등을 꾸준히 지원하여 키워나가야 한다.

8) 박동철,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고찰 - 청주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41집(2010. 8), pp.5-32.
 9) 박동철, "공공도서관의 주인은 이용자인 시민이어야," 충북일보, 2009년 2월 16일.
 10) 박동철, "공공도서관 확보, '정보사회 필수' - 시·도립 공공도서관 역할 기능," 중부매일, 2000년 3월 22일.
 11) 랑가나단 저, 도서관학5법칙, 최석두 역(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12) 竹内 抵, 圖書館の歩む道-ランガナタン博士の五法則に學ぶ(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2010).

다섯째, 도서관은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중복적·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의미상 어느 정도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그 경계선은 뚜렷하지 않으며, 중첩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도서관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의 하류 지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 곳에는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존재가치는 민물고기가 강에서, 바닷물고기가 바다에서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다.

이처럼 도서관이 갖는 가치 또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설로서의 성격'에 중점을 둔 재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상기 도서관의 5가지 주요 기능 및 역할은 교육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헌정보학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도서관 현장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식기반의 이론적 토대를 학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행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에 부응한 현장 사서들의 실증적 연구가 수반될 때 비로소 사서직의 지식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근원적 문제 외에도 문헌정보학 교육과 관련하여 소위 전문직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계 차원에서의 표준 교과과정의 확립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¹³⁾

최근 도서관 정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전문가로서 사서가 가져야 할 지식, 기술 및 소양의 내용이 변화했고,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문이 있을 수 없다. 즉, 사서자격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면,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사서의 교육을 대학원 수준에서 시행해 왔고, 나라마다 상이한 수준으로 교육해 왔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은 공통의 고등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또한 현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차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나라들도 사서직 양성을 위한 필요한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¹⁴⁾¹⁵⁾¹⁶⁾¹⁷⁾

13) 광동철, 심경, 윤정옥,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14) 日本図書館情報學會, 情報専門職の養成に向けた図書館情報學教育体制の再構築に關する總合的研究(東京: 日本図書館情報學會, 2006), <<http://wwwsoc.nii.ac.jp/jslis/liper/report06/report.htm>> [cited 2008. 12. 30].

15)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 2005 수정,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ctor: Core Knowledge, Skills and Attributes," <<http://www.alia.org.au/policies/core.knowledge.html>> [cited 2008. 12. 30].

16) U.K. CILIP, "CILIP Accreditation Instrument 2005," <<http://www.cilip.org.uk/NR/rdonlyres/AB7FB628-3922-4681-85AA-3E75593A0389/0/ACCREDITATIONWEB.pdf>> [cited 2008. 12. 30].

1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Jan. 5, 2008.

현재로서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 학부 수준의 교육 체제 유지를 전제해야 한다면, 반드시 표준 교과과정을 설정하여 그 가운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두고, 최소 취득 학점 수를 상향 조정하여 이들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준 교과과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¹⁸⁾¹⁹⁾ 첫째, 최신 도서관 및 정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서와 정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새로운 지식,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 사상과 철학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과목을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 현장 실습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문헌정보학 교육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요구를 일치시켜야 한다. 셋째, 주제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목을 포함하여 향후 전문사서제도가 채택될 경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서양성기관과 사서자격제도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관련 학회나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이 개최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이 합심하여 개인적 이해득실을 넘어 전문직 사서를 전문직답게 양성하기 위해 전술한 표준교과과정의 확립과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한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매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배출되는 사서직 인력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원의 졸업자들을 제외하고도 2,000여 명에 이를 정도이다. 또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 나타난 정보에 의하면 매년 졸업생 가운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비율과 실질적 취업률이 그리 높지 않다. 그 밖의 취업자의 상당수도 비정규직, 임시직, 기간제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대학의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사서를 배출하는 단기 프로그램인 사서교육원의 계속적 존치 및 신규인가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이 양성한 사서직 인력의 규모는 『한국사서교육원 요람(2008-2009)』에 의거하면 196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64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6명의 1급 정사서, 2,250명의 2급 정사서, 4,115명의 준사서 및 700명의 사서교사가 배출되었다. 이러한 수치에 근거하면 상기 한국사서교육원 한 곳에서 2008년 9월 현재 사서자격증 소지자 누계 66,057명 가운데 사서교사를 제외하고도 6,441명이 양성되어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매년 이 곳을 통해 230~240여명이 졸업하여 신규로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1989년 계명대학교와 1997년 부산여자대학에 사서교육원을 추가로 인가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기 3개 사서교육원의 최근 3년(2006~2008)간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0명이며, 이 가운데 1급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education/accreditedprograms/standards/standards_2008.pdf> [cited 2008. 12. 30].

18) 엄영애, “문헌정보학과와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p.33-49.

19) 김세훈,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정사서가 9명, 2급 정사서가 205명, 준사서가 78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년 적어도 7~9개 대학 졸업생 규모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는 것과 같다.²⁰⁾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사서자격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자격증 소지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사서교육원의 계속 존치나 재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해야 한다. 특히,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과정조차 설치되지 않은 전문대학 부설 사서교육원이 1급 정사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전문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표준화와 사서자격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은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합의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30~36학점 정도의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나 현장에서는 사서직원이 전문직으로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자격을 강화하고 자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서직원이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주창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외형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요건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의 사상과 철학의 빈곤은 문헌정보학 또는 사서직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이 함께 노력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고찰하고, 발전 방향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을 '시설'로서만 인식하지 말고 '시설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 현장에서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과 크로포드와 고먼의 새로운 도서관학 5법칙 등을 전문직 사서 양성을 위한 이론과 실무의 사상과 철학으로 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20) 광동철, 심경, 윤정옥,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 (2009, 6), pp.193-213.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규명하고, 도서관의 사상과 철학을 내재한 학문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 탐구와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 표준교과과정의 확립, 그리고 사서양성기관이나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문제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이 함께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 충분한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규명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전문직 사서 양성을 위한 표준교과과정을 확립하며, 사서양성기관의 정비 및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반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기반조성단계, 확산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서관협회는 전문직 단체로서 도서관의 발전과 사서직의 권익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부처의 지원을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